

스위스 루체른의 교통박물관

유럽 최대 규모 ... 매년 60만명 관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스위스를 여행해 보고픈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것이다. 스위스는 국토의 1/4이 높은 알프스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가 작고 농경지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지하자원도 전무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바로 수려한 경관으로 인한 관광산업, 로렉스, 까르티에, 스위치 등 세계적인 시계를 탄생시킨 정밀공업의 발달과 금융업 덕분일 것이다.

스위스의 도시들 중 가볼 만한 곳으로 루체른을 꼽을 수 있다. 루체른은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룬 곳 중의 하나로 역사의 흔적이 구석구석 남아있다. 중세의 문화와 자연미, 21세기 문명의 이기가 잘 결합되어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라 불리고 있다. 루체른의 구시가를 걸어다니다 보면 광장을 연결하는 골목골목의 벽면 가득히 프레스코화를 구경할 수 있어 마치 미술관을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인 카펠교에는 1백10여장의 삼각형 판화가 부착되어 있으며, 난간의 꽃들은 낭만적인 경치를 만들어 낸다. 고딕 양식의 첨탑이 있는 호프 교회도 스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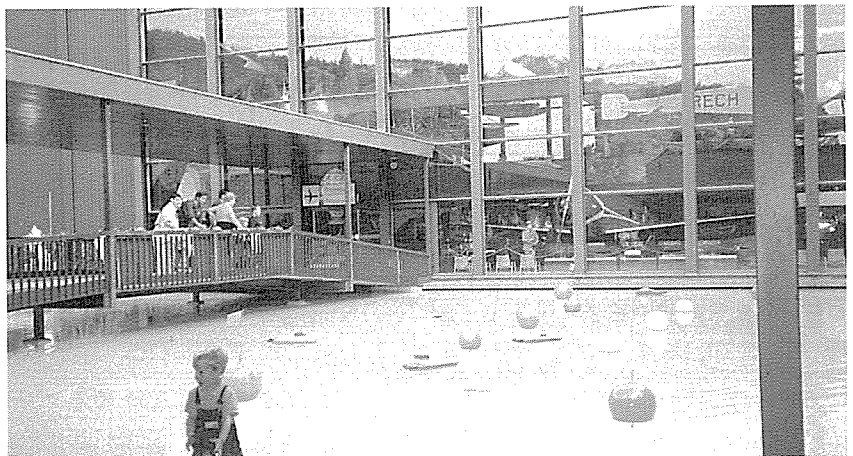
대표하는 역사적인 유산이다. 루체른에는 자연사 박물관, 루체른 역사박물관, 시계박물관, 교통박물관 등이 있는데, 이 중 교통박물관은 유럽 최대의 교통과 통신에 관한 박물관으로 루체른의 여러 박물관 중 가장 방문해볼 만한 곳이다. 이곳에 매년 6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교통발달의 역사 한눈에

교통박물관에는 지형 특성상 기차가 발달한 스위스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증기 기관차와 등산 전차 외에도 자동차, 비행기,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어 말 그대로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전시장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특히 각 교통수단의 모형과 시청각 볼거리들은 매우 흥미로우며, 전시물들을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거나 조작하면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가 쉽다. 박물관은 육상 교통관, 철도관, 항공과 우주 비행관, 해상 교통관, 케이블 교통과 관광관, 통신관, 론진 천문관으로 나누어진다.

육상 교통관은 서커스에서 사용하는 외바퀴자전거에서 마차, 수레, 오토바이, 클래식 카에서 현대의 자동차까지 기차를 제외한 육상에서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 홀 뒤편에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시



교통박물관입구 연못에서 모형배를 조종해보고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루체른은
중세의 문화와 자연미 그리고 21세기 문명의 이기가 잘 결합되어 있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매혹의 도시이다. 이 곳에 있는 루체른 교통박물관은
증기기관차와 등산전차 외에도 자동차, 비행기, 버스, 배 등 모든 교통수단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과거·현재·미래의 교통통신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매년 6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력과 반사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곳 (Vision and Reflex test)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끈다. 이밖에도 자동차 형태에 따라 공기역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 모형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느껴지는지 테스트 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우주에서의 생활도 체험

철도관에는 산악 철도, 증기 기관차, 전기 기차 등 기차에 관한 모든 것이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철도관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끄는 것은 고타드 터널쇼와 기관차 시뮬레이터인데, 고타드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터널로 길이가 16km나 된다. 이 건설은 토목건설분야에서 세기의 업적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건설로 고타드 터널쇼는 작업용 열차를 타고 터널 안을 여행하면서 터널 공사를 했던 인부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생활과 작업을 체험하는 것이다. 기관차 시뮬레이터는 기관차를 운전하면서 기관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항공과 우주 비행관에는 기구와 비행선 등 33개의 비행기구와 3백여대의 실물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고, 그 외

에도 모형 비행기, 디오라마, 시뮬레이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뫼니뫼니해도 코스모라마(Cosmorama)라 할 수 있다. 코스모라마에서는 우주에서의 생활을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으며, 우주 여행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PC 상에서 비행사가 되어 비행기를 조정하는 비행시뮬레이터는 실제로 비행기를 탄 느낌이 들게 하여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공항 관제탑을 재현한 곳에는 실제 비행기의 조정에 쓰이는 레이더 계기판과 통신 기구도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알프스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오래 전부터 케이블 교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해 왔다. 관광산업에서 케이블 교통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케이블교통이 안전면에서 좋은 평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케이블교통과 관광관에는 스위스의 관광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카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관의 하이라이트는 3층에 있는 스위소라마(Swissorama) 상영관이다. 약 20분 정도 상영되는 스위소라마는 360° 파노라마 화면으로 스위스

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민속놀이 등을 보여준다. 스위소라마 상영관 옆에 있는 투어리즘 플리퍼(Tourism Flipper)는 버튼을 누르면 배나 기차 같은 스위스의 교통수단들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끈다.

이 외에도 항해와 관련된 모형과 실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해상 교통관과 라디오, TV, 비디오폰 등 통신 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조작할 수 있게 해 놓은 통신수단관, 최신 천체 시뮬레이터로 우주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론진 천문관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기술과 통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스위스 화가 한스 에르니의 3백여점이 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한스 에르니 박물관(Hans Erni Museum)과 아이맥스 영화관(IMAX Theatre)이 있다. 관람객으로서 느꼈던 스위스 교통박물관의 가장 큰 매력은 전시물을 직접 만지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각종 모형, 그림, 필름, 흥미로운 소리 등을 통해 박물관에 전시된 각종 교통수단이 사용되던 시대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해주는 점들은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기억의 장소로 만들 것이다. ⑤7

崔京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